

*팀NO 41

2019 단기선교팀 신청서

(2)

선교위원회확인

1. 국가팀명: 일본2 (팀)

공항: ^{간사이}(~~산사카~~) *항공권 구매: (자율, ~~공항~~)

2. 사역지: 일본 교토지역

3. 사역기간: 2019년 11월 6일(수)-11일(월) 5박6일

서기

지도목사

위원장

147

[Signature]

[Signature]

NO	직책	직분	한글	영문	생년월일	교구	CNTC	교적	성별	전화번호	주소
1	팀장	장로	김신국	KIM SHIN KOOK	[REDACTED]	14		87-81	남	[REDACTED]	[REDACTED]
2	집사	총무	송현 ⁴	SONG HYUN SOO	[REDACTED]	3		2003-0287	여	[REDACTED]	[REDACTED]
3	권사	회계	홍정호	HONG JUNG HO	[REDACTED]	15		89-1542	여	[REDACTED]	[REDACTED]
4	집사	서기	김현정	KIM HYEN JEONG	[REDACTED]	11		2003-0221	여	[REDACTED]	[REDACTED]
5	집사	의료	신란희	SHIN RAN HEE	[REDACTED]	1		91-692	여	[REDACTED]	[REDACTED]
6	집사	팀원	김정란	KIM JEONG RAN	[REDACTED]	9		2003-0531	여	[REDACTED]	[REDACTED]
7	권사	팀원	안응화	AHN OUNG HWA	[REDACTED]	13		81-794	여	[REDACTED]	[REDACTED]
8	집사	팀원	지강미	JI KANG MI	[REDACTED]	1		99-1091	여	[REDACTED]	[REDACTED]
9	권사	팀원	최명희	CHOI MYOUNG HEE	[REDACTED]	1		83-669	여	[REDACTED]	[REDACTED]
10											

담당

분과장

황수만

장재명

8/25

8/25

일본 2팀 단기선교 소감문

김정란 집사 (9교구)

저는 이번선교가 저의 첫 선교였습니다. 교회에서 단기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보면서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며 저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정말 감사하게 일본단기선교를 다녀 오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

저의 일본선교에 대한 마음은 작년 교회게시판에서 아가페일본선교회 포스트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기독교 복음현실에 대해 알게되었고 0.4%의 복음화율 , 크리스마스때 유일하게 일하는나라, 크리스마스가 산타클로스의 생일로 알고있는 나라, 평생 예수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운 일본에 대한것을 알고 적잖은 충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이번에 일본을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올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 등등 여러가지 일들로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멤버였습니다.

많이 부족한 팀원인 저를 사랑과 격려로 보듬어 주신 팀장님과 팀원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본 교토의 일본인 소마목사님이 계시는 cfc교회로 가게되었고 그곳에서 협력 선교사로 섬기시는 김세진 선교사님과 함께 문화사역으로 단기 선교을 진행했습니다.

김세진 선교사님은 가스펠비전하우스 프로젝트로 일본인의 메마른 영혼과 각박한 마음을 찬양으로 녹이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금요일에 우리는 김세진선교사님 가스펠팀과 소마목사님과 함께 일본영 양로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양로원 가스펠 사역은 김세진선교사님이 하고 계시는 사역으로 가스펠 팀이 일본 전통가곡을 주고 부르면서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봉사활동 인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로원에서의 복음전파는 현실상 거의 불가능한데 신기하게 원장님이 복음전파해도 좋다고 찬양도 맘껏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놀랐고 같이 갔던 소마목사님과 김세진 선교사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소마목사님의 짧은 설교도 하실수 있었고 김세진 선교사님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하였고 우리 단기선교팀도 준비한 찬양과 율동찬양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것을 직접 볼수 있는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원장님께서 본인도 크리스천이라고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었다고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교회에 다시 나가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모든분들이 감사와 은혜를 받은 현상이었습니다.

토요일의 초청잔치와 일요일 가정방문을 통해서도 정말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선교가 정말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바르고 반듯하고 배려심 많은 일본인 들이지만 그들에게서 진정한 삶의 주인이 없는 눈빛과 어두운 표정들을 느꼈습니다.

정말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첫 선교를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직접 체험할수 있었고, 또 타지에서 모든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담대하고 선교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크신 계획을 보았습니다

척박한 일본땅에서 신학과 가스펠찬양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세진 선교사님과 부인이신 윤선영선교사님, 아들 김찬영(10) 선교사 주님 안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찬양) 땅 끝까지 복음을...> **소감문** 일본 전기 선교 기록 (교토) 안 용하 목사 (내가 성경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행 1:8))

1. 땅 끝까지 복음을 주님 분부하신 대로 이 세계를 다하도록 전하고 전하리
2. 주님께 맡기고 땅 끝까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리
3. 주님 말씀 들리고 심치하지 않으면 그 책망 두렵구나 순종해 전하리
- [후렴] 너도나도 복음으로 외치고 외치자 온세상을 어디하나 전하고 전하자

일본 첫 전기 선교사가 되는 기록한 복음감을 갖고 복음의 불모지인 ①유일신

②참로 하나님께의 개념이 없는 나라 ③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인 나라 ④ (일본은 당시를 통해하는 나라)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 공유와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목적을 보여 주셨고
 위상과 이름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일본 땅에 주님께 복음의 불꽃을 예비하셨고
 나노에게 바라보시며 구원하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날 일본 땅에
 동행하게 임하고 계셨다.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것은 영적 회개의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케 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 땅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다양한 사역에 전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해 계속 일하라고
 명령하셨다.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승리가 이미 우리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중보하셨다
 주님을 계속 의지하면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

가메지 선교사님의 가톨릭 비전 하우스의 주된 선교사역은 찬양을 통해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한류의 문화 컨테이너로 여러 지역을 생기기 (교토, 가메지) 복음화는 문화 선교이며
 이 지역의 수많은 젊은이와 영혼들을 특히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과
 함께 일본 전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불꽃이 싹을 틔우고 선교 프로젝트이다.

- 선교 지역 정보와 선교사역 대상 -

• 선교 지역: 교토시

• 지역 인구: 1,474,015명 (2010년 통계)

① 학동 지역: 동지사 대학 • 도시 특성: 일본의 1번째 큰 역사 관광 도시 교토시는

학동 지역이라고도 불리는 8개의 (동학, 단라) 대학 있음.

• 선교 활동: 1. 대외 선교 2. 목회 및 지역 교회

• 선교 방법: 찬양 사역, 문화 사역, 한류 사역 (교회 중심) 선교 사역 (세계 선교의 동역)

동지사 대학은 1875년 메이지 시대 6대 교육자 중의 한 명인 니지마 조가 세운

동지사 대학 학교이다. 표어: 전리자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최초의 개신교: 종교

창립자인 니지마 조의 유지를 받들어 각국의 유학생을 학습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국, 중국, 대만, 영국, 베트남, 터키에 국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원동지 시인(기독교) 제지물 시인(천주교) 유학생 23명 유학생 23명

이제 대가라 캠퍼스에는 두 시인의 시가 세워져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아메리칸 대학교와 국내 교단 유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스도교 정신과 국제주의에

입각한 자치체로 학생들에게 많은 인재를 길러낸 대학으로 유명하다

가스펠 버제하우스 in Kyoto

가스펠 버제 하우스 28기 20년 23심 옥동
 ① 불타사역 (5년) 관제타 불타사역
 ② 연화사역 (15년) 관제타 불타사역
 ③ 지역사역 (관제타 불타사역)
 ④ 사역 (관제타 불타사역)
 ⑤ 사역 (관제타 불타사역)
 ⑥ 사역 (관제타 불타사역)
 ⑦ 사역 (관제타 불타사역)
 ⑧ 사역 (관제타 불타사역)
 ⑨ 사역 (관제타 불타사역)
 ⑩ 사역 (관제타 불타사역)

매주 수요일 찬양예배를 통해서 찬양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스펠 콘서트 중 지도정리도 진행 가스펠 교신 참여
 교신 등을 통해서 젊은이들과 함께 사역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CFC (크리스찬 펠로십 센터) 교회에서 행하는 선교사로
 다양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각 한복은 목회자 교회 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에도 보다 폭 넓은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
 또한 동지사 대학을 통해서 사역의 지평과 선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CT나 4990 권이를 통해서 다양한 선교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역들이 가능한 것은 모두 그의 은혜이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신 결과이다
 지극적인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교 선교팀 사역

< 수요일예배 >

- 1. 사탄 및 예배인도 감시자 목사님 진행
- 2. 단기 선교 특송 1) 장로님 생신 축하

※ 지금도 전도자의 영혼들이 아득 소중하기이
 복음으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를
 예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 목요일 >

동지사 대학 캠프 (영양 가정지역)
 교신 (영양 청년이 살던 곳) - 기도가 필요한 곳에 기도하고
 가스펠 교신 참여 (성도교)와 만남의 삶. 모두 신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 금요일기독교사역 >

노년층 (시니어)을 중심으로 현지교회 (CFC) 교회 팀과 교신교로 각 특송과 찬양
 율령으로 찬양시 어르신 모두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함께 감사드립니다.
 시니어 모임을 크리스찬 이시기에 마음껏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은혜가 있었다.

< 토요일 > 우리 교신 헌정잔치 20여명 참석.

감동 받듯이 직접 만들기 레시피 소개하면서 즐거운 기도+식사+나눔
 편식이, 장차
 성도들의 반응도가 높았고 친밀한 교제가 형성됨

<두잇예예>

잇보 신고 그림 (교원)

신고 쇼마 목사님 (잇보인)

안 응학-지사

1. 하나님을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2마씨 1=7
마태복음 1=21
요한복음 6=38
감사디아씨 4=4-7
요한복음 8=44
마태복음 5=48
시편 103=13-14

2. 하나님의 지능하심이란 어떤 의미인가

장 17=1
사도신경 지능하사 계시를 받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누가복음 1=37
마태복음 19=26
요한복음 14=13-14
2마씨 8=28.

<두잇가계장 방문>

히타노리
이타카시 (70대) 의 아들 (26세) 지능하심.
제대. 다음 중독으로 강박적인 기도가 필요! 16명의 도우심과 16명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히타노리를 행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함께 풍기를 윤택했

주님의 강박하심 우리에게도 심어 주셨다.

<잇보인> 그가 계에 대한 주님의 뜻을 보여 주시니 우리는 그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도록
주체하였으니 함께 계시 영혼으로, 강박적인 기도로 중보자로 동참하사게
해야 해야 한다.

(TS 라디오 조이 인터뷰 통해서 복음사역 활동으로 마무리 함.

사역기간 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히 주사 누리게 하시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신을 사랑하여 신의 사랑을 많이 하여 나중의 주기를 풍요하게
모든 사역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너그러움과 지혜를

동행하시어 행하세 주신 김씨전 시조사께 감사합니다.

잇보인 ...

특히 차량보사로 수고하신 야마다상께 감사드립니다.

- 소감문 -

일본그림 회명회

일본선교사로 사모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드립니다.

우리팀은 교토 CFC 소마목사님과 김세진선교사를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본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지 노인홈(양로원)에 방문했을때 문을 열고 시설 안으로
들어 갔을때 원장님께서 반갑게 맞이 하시면서 계시는 말씀이
나도 크리스찬이니까 찬양을 마음대로 부르고 말씀을 전 하라고
하실때에 나와 어리석음을 성경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미리 오셔서 다 준비 해 주셨구나.

찬양과 율동(예수 ~~사랑~~ 사랑하심은)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신나게
어르신들께 전했을때 어르신들은 율동을 즐겁게 따라 하셨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믿고 한영혼 한영혼 주님께 돌아 올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소마목사님과 김세진선교사님이 지금까지 시설(양로원)에 방문 하셨는데
오늘 같이 큰 은혜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것이 성경님께서 다 승리 하셨습니다.

토요일 전도잔치(음식 문화교류, 김밥, 잡채, 떡볶이)에서 김밥 만드는 체험에
일본사람과 친숙 하셨습니다.

일본선교는 관계선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가정을 방문 했는데 한 청년이 정신 질환 환자인 히테노리라고
한다. 하루에 담배 4갑이나 피운다고 합니다.

히테노리에게 성령으로 치유함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일본땅에
영혼구원하는 선구가 되길 간절히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워

P.S 김세관선교사님 건강도 치유 하셔서

일본땅에서 가스펠 사역을 통해 많은 불신자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소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우상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일본

그 영혼들에게 가라고 해낸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과 인도하심을 믿고 일본 2팀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빛음을 전하러 고토에 발을 내딛었다

가서부터 빛음 사역을 해보는 감세진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찬양을 통해 일본영혼들의 마음에 빛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아름다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기적과 같은 일본 가정 방문으로 정상적으로 고통받는 한영혼을

만나게 해주고, 함께 찬양하게 해주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성세하신 사랑의 인도하심을 다짐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었고,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빛음이 앞장서는

일본 가정이 대가를 간절히 기도한다

역사가 가치고 있는 일본의 대한 선양전을 버리고

빛음화 때에 맞추도록 역사하는 바위의 권세를 영적으로 분별하며

행하랴도 보좌케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고마움을

깊이 헤아릴수 있는 시간 이었다.

일본이 빛음화 됐는지도 몰라, 힘을 모아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지금도 나아가게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2019. 11/6 ~ 11/11 월보교도 선교 2층 지 강미감사

성령님! 연도하심으로 준비. 기대 속에 교도 CFC
교회에 지친분 실로 부사히 드치느라왔습니

CFC 교회 도마복사님! 한국인 김세진선교사님! 성도님들
환영 해 주셔... 장로님감증. 기도로 은혜롭게 첫 날 일정 나간
하나님! 계획과 역사 하심에 경이로 놀라왔습니
기도중에 송혜수홍무익 승진하여 말레이시아보도나 홍무익
몇배로 바쁜일정을 주님! 천당에 해주신 감사드려
기도 가운데 큰 기쁨이고 은혜로 느꼈습니

양로원 방문 헌정 위로하신 어르신 분이 불편해 될까봐 라신분
모시고 찬양. 율동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픈신 어른들께
함께 율동하시고 기뻐하시느 모습 참 놀라웠습니-주님!
하나님 모음을 감사드립니다 X-mas에 초대까지 다시와달라
초청까지 받았습니 X X

코리언 후드 크리스티벌.

반대위. 준비해가며. 새벽부터 찬양가득 준비 해가며.

CFC 교우들께 기대이상. 성황리에. 장래. 건강. 때문일뿐
직접. 시현하고. 대접하고. 맛있게 드시는 환안 모습에
이모두가 주안에 은혜로 은혜로 다들 외쳤습니 그후로
서로 처안고 사랑으로 하나되어 화답하왔습니

저희는 월보라니 관계를 연려하며. 떠났습니

모든 연려나심을 주님 눈속림이 사랑으로 품어 주셔

내년엔 다시 올것은 기약하며. 월보 환기 선교 CTS 라디오로
출연하며. 대담하고. 많은 발전을 보았습니

답장삭제 전채읽기전달 전월달 삭제 이동 스템차단음 표시 이동 4 / 969가가능

FW: (19/11/20)

보낸사람 홍정호 <pc3003@daum.net> 19.11.23 21:56 주소추가 수신

전체 안읽음 4

받은메일함 4

내게쓴메일함

보낸메일함

수신확인

임시보관함

스팸메일함 24

휴지통 11

내 메일함

Unwanted

분류 메일함

청구서함

카페메일함

더보기

외부 메일 확인

Daum 스마트워크

환경설정 주소록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pc3003 <pc3003@daum.net>

받는사람: <pc3003@hanmail.net>

날짜: 19.11.23 19:52 GMT +0900

제목: (19/11/20)

소감문 홍정호

주님의 지경을 넓히며~~~

일본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은 내마음에선 광야였다

가는날까지 마음속에서는 계속 갈등이 있었다

주님께 마음의 편안함을 기도하며 웬지모를 불편한 마음으로 일본을

일본에서 역시 마음에서 불편함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안에서 내게

선교사님의 찬양사역, 심방사역

일본과의 음식교류

이 모든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속에 있었다

젯빛과 같은 영적인 어두움속에서 작은빛으로 계시는 선교사님을 보
활을 회개케 하셨다

노인홈에서의 찬양을 통한 복음전파

찬양과 율동을 따라하시는 분들

우리에게 찬양과 복음을 전할수 있게 해주시며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그곳에서도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고 선교사님의 찬양은 우리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심방사역 시 악한영에 시달리는 히데노리상을 보며 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은 그땅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며 중보기도를

주님은 우리를 중보기도의 일꾼으로 쓰시는듯 했다

모든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수 있는것은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주님은 이번선교를 통해 다시금 말씀과 기도속으로 나를 부르신것 같

주님께 드리는 기도속에서 주님은 일본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게

그루터기가 되어 그땅에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 나갈수 있는 기틀

주님의 일하심

그속에서 나에게 주신 평안함과 깨달음

망설였던 나를 부끄럽게 하시며

또 다시 주님의 지경이

보잘것 없는 내 마음속에서도 넓어짐에 감사드립니다

iOS에서도
다음메일앱을
만나보세요



일본 그림 교토 지역 단기 선교 소감을

김 현재 목사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임으로
늘 어느 곳이든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일본이 새로운 열매에서 년초 자원 하였고 올 1년 내우도 분주
하였기에 겨우 조건에 부합 하도록만 준비해서 출발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준비가 없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고 도착 하였습니다.

도착 일정이 예상 보다 지체 되어 약속 시간에 늦었고 허둥 지둥
예배 드리는 것에 제 몫이었습니다.

평안한 밤을 보내고, 교토 고요하던 곳을 땡땡기를 하면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늘 땡땡아나! 조상들의 심사참배가
미치지 못할까 역사속에서 현재 나무위라든 핏대를 해야 하며
신앙의 재개가 얼마나 어려울지 중대한 원인을 다시금 생각 묵상
하게 되었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찬송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다

송현수

11월6일부터 11월11일까지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를 수 없었던 그날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뜨겁게 되살아난다. 일본 제2의 수도라고 하는 교토(京都)가 이번 두번째 일본 선교지였는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경주와 같은 역사가 오래된 옛 일본平安시대의 수도이다. 절과 신사가 무려 2천개가 넘는 곳이니 얼마나 영적인 놀림이 강한 곳인지 도착하는 순간부터 체감할 수 있었다.

교토는 관광지라 노방전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현지 CFC교회의 김세진 선교사님께서 하고 계신 가스펠교실을 통해 찬양 복음사역을 함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양로원 시설 방문사역과 주말 한국음식문화 초청전도잔치, 주일예배 간증고백, 일본가정방문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며 왔다.

이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역을 고백하자면, 양로원 시설사역과 일본가정 방문사역이다. 부족한 가스펠찬양을 들고 현지팀과 함께 가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현지의 양로원시설에서는 종교적인 발언을 하면 안되기에 가스펠찬양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랫말로 들려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의 일본어 찬양준비는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장로님의 기도와 몸소 색스폰 연주를 앞장서서 담당하신 모습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표정없는 치매 가까운 노인들과 일본조무사들이 정적에 가까운 분위기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최대한 밝게 우리를 소개했다. "우리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멀리 한국 서울에서 왔고, 우리는 전문 뮤지션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말이 끝나자 저쪽에서 소장님이 얼굴이 빨강게 상기되어 다가오는 것이었다.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순간, 그 분입에서는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고싶은 찬양을 모두 하시고 전하시고 싶은 하나님 말씀도 마음껏 하세요" 오~ 할렐루야~ 이후의 시간은 우리가 준비한 유치하지만 모두가 기뻐 따라한 예수사랑하심은,의 율동찬양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다며 CFC일본목사님도 놀라워하셨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아닐 수 없었다. 우리의 실수와 실력의 부족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상황을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어두운 곳에서 혼자 숨어 찬양하고 계셨던 양로원소장님에게 빛으로 다가 가게 한 것이었다.

두번째 체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건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로 증거자로 살겠다고 결심하게 된 사건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CFC교회성도의

가정으로 아들이 정신분열과 담배중독을 15년이상 앓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는 채플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재력가이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의 지체였다. 찬양을 좋아하는 이와끼상은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아들 히데노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길 구했다. 방문당시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놀리는 기분이 들었고 찬양하는 가운데 비쩍마른 히데노리가 들어오자 우리는 알수없는 설움에 복받친 울음이 터져나와 찬양을 하기가 버거웠다. 히데노리를 가운데 앉혀 모두가 합심하여 안수의 기도를 하자고 제안하여 가운데 앉혀 모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채플교회의 하와이목사님,김세진선교사님,이와끼상,우리팀원 8명 모두가 뜨겁게 기도를 올리는 가운데 갑자기 지금껏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힘이 위에서부터 나를 씌우듯이 내려오고 가운데 밝은 빛이 보이기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있었다. 멈출수가 없었다.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 성령님께서 히데노리를 위한 간구를 중보해주신 것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부끄러워 대표기도도 주저하는 내가 감히 어찌 목사님과 장로님을 제치고 그렇게 큰소리를 지르며 기도한단 말인가. 정말 주님은 살아 계시고 히데노리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셨음을 우리 모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되고 있다, 생각지도 못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로 보내시고 이곳 한인교회에서 선교를 다시 이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소망하고 있다. 나는 주님오실 때까지 선교사입니다